

제415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18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6
o 간사(문정복) 인사	6
2.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6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률안 및 결산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위원들이 전부 모여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눌 자리입니다마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하루빨리 함께하셔서 상임위 활동이 완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출석한 위원님들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은 김영호입니다.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위원장님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22대에서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임하는 동안 다음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21대 대비 월등한 입법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교육위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만 784건에 달합니다. 당시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22대에서는 새로 선출된 간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의 모습을 되살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둘째, 공정한 교육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경감, 장애인 교육 활동 보호 등 대한민국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해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쇄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학교 폭력 근절, 총장 직선제 등 민주적 법과 제도를 마련해 학내 민주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청산하겠습니다.

특히 특권층의 부조리와 부당한 권리 개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만큼은 반드시 매듭짓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과대학 증원,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이나 활동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위원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22대 첫 교육위 간사로 내정된 문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앞자리에 앉게 될 줄 몰랐어요. 간사의 역할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법안 처리를 속도 내서 하고 국민들의 교육에 관한 일들을 잘 처리해 내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위 간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학문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바른 확인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위에서 침예하게 문제 제기되어 있는 유보통합에 관한 문제들 잘 정리해서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홍갑 문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문정복 위원님은 21대 국회에서도 저와 호흡을 맞췄던 콤비였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더욱 역동성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정복 위원님께 겨는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우리 교육이 정말 잘 돼 가고 있는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교육 전문가셨고.

다음으로는 김준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준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정 지역의 김준혁입니다.

먼저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 첫 전체회의인데 참석을 못 하게 돼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빨리 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에 오셔서 우리가 풀어야 될 교육 과제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교육계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의 문제점들, 또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초등학교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아버님께서 꿈꿔 왔던 교육의 어떤 세상들 그리고 경험했던 문제들을 제가 이 교육위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숙명여대 총장 선임 건도 말씀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더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박사 논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아주 깊게 다 이렇게 숙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잘 검토를, 검증을 좀 하고자 하고요.

특히나 AI 디지털 교육과 관련돼서 최근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또 8월 30일에 나올 내년 2025 역사교과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혹시라도 민족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뉴라이트 사관에 의해서 교과서가 집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 백승아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백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세 아이를 둔 엄마이자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부모이자 교육자의 시선으로 교육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잘 배우고 열심히 행동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을 키우는 데는 백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이기에 더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경쟁교육이 심화되어서 영혼까지 메말라 가고 교사들은 교권 추락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육 혁안들이 너무나 많아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현장 교사 출신으로서 공교육을 무너트리고 있는 현재의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고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몰두할 수 있는 나라 또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지요.

○진선미 위원 제가 좋아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또 문정복 간사 내정자님과 또 여러 전문가이신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는 교육위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22대 국회의 첫 시작과 또 교육위의 첫 시작이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신입의 마음으로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산적해 있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든든하고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들 오시면 인사말씀을 계속 청해 듣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위원님 차례시거든요.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우선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호 위원님 선출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문정복 간사 내정자님 감사드리고 무척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모르게 되게 역동성 있게 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잘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교사로 일했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한 15년 정도 일하고 교수로 한 18년 정도 일하다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하면 좀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다가 교육격차 해소 이런 것을 뛰어다녔었는데요. 조금은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학교 그리고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 또 글로벌30, 굉장히 교육 현안들이 많은데요, 초중등 교육의 파트도 있고 고등교육에서도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설익은 교육정책으로 이런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될 텐데요.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잘 챙기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것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동료 위원들과 함께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힘당 위원님들 아직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 하루빨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머리를 모으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역시 교육적인 분위기로 인사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가장 우리 당에서 바쁘신 분이지요.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원내수석을 맡고 계신 박성준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이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 국회운영위가 같은 시간에 열려서, 제가 또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게 돼서 간사 선임의 건이 있는데 잠깐 간단히 인사드리고 다시 또 운영위로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교육의 가치라든가 미래세대를 위한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교육의 기본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치가 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윤 정권의 교육의 이념, 교육의 방향 또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 상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위원들이 오늘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역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방기했을 때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국민의힘 위원들도 다음 회의부터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교육을 위해서 서로 고심하면서 좋은 안들을 만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앞으로 박성준 위원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말씀은 참석한 위원님들은 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오셔서 간사 선출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박성준 위원 간사 선임을 하고 내려갈게요. 저희들도 간사 선임을 해야 돼서……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 말씀 청해 듣고 바로 간사 선출로 가도 되겠지요?

고민정 위원님, 저는 기대가 큽니다. 말씀 주시지요.

○고민정 위원 반갑습니다.

광진을 고민정입니다.

교육위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위낙 유능하신 위원님들 또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든든하고요. 위원장님과 간사님 잘 모시고 교육위 역할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직원분들 소개를 조금 뒤로 밀고요.

그러면 곧 안건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저희들도 좀 내려가서 간사 선임을 해야 되고, 지금 간사 선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영호 바로요?

○박성준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 오시면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같이 의결할게요. 의결은 금방, 시간이 안 걸리니까요.

안건 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한 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21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합니다.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의결로 추인하는 방식을 그동안 취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만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문정복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는 것이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문정복) 인사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최선 다해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돋는 간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2.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2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25일 오후 2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차관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보다 앞서 개최된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총선의 민의를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국회에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독단을 입법부가 똑바로 견제하고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수단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 등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꼭 출석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 직원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위원회 직원을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채수근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정순임 전문위원이십니다.

김정규 행정실장이십니다.

(인사)

입법조사관 등 다른 직원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안건 처리는 마무리가 됐고요, 혹시 위원님들 현안 관련돼서 언급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그냥 의사진행발언……

지금 오늘 교육부장관이 왜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오늘은 출석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 오늘은 원래 안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김문수 위원** 만약에 25일 날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다른 상임위를 비춰 볼 때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고 있지요.

○**김문수 위원** 제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할 때 조희연 교육감님이, 원래 단체장은 본회의에만 출석하지 상임위원회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조희연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부교육감이나 국장,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면 자꾸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답을 드리겠다, 속시원한 대답을 못 하니까 위원들이 답답해서 그러면 교육감님이 직접 와서 답을 해 줘 버리면 될 텐데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법에도 없고 그런 관례도 없어 가지고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시길래 그래도 직접 와서 답을 해 주면 당연히 소통이 훨씬 빠르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2014년도에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도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시간을 좀 절약해서 첫날 오전 두 시간 정도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연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될 상임위까지 나와 가지고 위원들과 국민들과 또 교육 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 장관들의 태도나 정부를 보면 사실은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돼서 질문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은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되어서 대답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앞뒤가 뒤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도 예의도 뭣도 없는 아주 기본도 안 된 윤석열 정권에서 그 밑에 있는 장관들조차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25일 날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연구해서, 저희들도 같이 연구하고 위원장님도 같이 좀 고민해 가지고 좀 강도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다만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이 저는 참석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 또 여러 가지 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참석을 안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숙명여대 총장 선임 건과 관련해서 14일 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교수님께서 총장에 1등을 하셨어요. 이제 이사회 결정만 남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사회가 1위 후보를 제치고 이사회 입맛에 맞는 현 장윤금 총장을 만약에 총장으로 선임한다고 하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숙명여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명여대에 김건희 여사 논문 과정이 자그마치 28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명문 사학인 숙명여대의 권위도 굉장히 실추되었고 그리고 학문의 정의를 요구하는 대다수 많은 분들의 요구가, 그 사람이 좌절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숙명여대라는 사학의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대다수 열심히 논문 작성해서 학위 받고 연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저는 숙명여대의 총장 선임 건이 다시는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도록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사회의 결정만 남았으니 저희 위원회가 강력하게 숙명여대에 원칙대로 총장을 선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정기국회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총장이 국감에……

○위원장 김영호 김지용 이사장.

○**문정복 위원** 김지용 이사가 저희 국감 때 중인 채택에 맞춰서 해외 연수를 가는 촌극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대와 숙명여대에, 저희는 반드시 김지용 이사를 청문회에 다시 부를 거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해외 출장을 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우리 국회 22대 교육위 간사이신 문정복 간사님께서 교육위의 역대 최강의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언급하신 이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신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의 위원님들도 공감하시지요?

우선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선거는 아마 과반 득표가 안 돼서 결선투표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선투표에서 1등 한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결과를 뒤엎는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윤금 총장,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님 상습적으로 국정감사를 회피해 오셨어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공분을 많이 사셨는데 저희는 한번 하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못 나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난 국정감사를 잘 지켜보시면 회피했던 증인들 다 나중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예정된 국정감사 때 외유 나가지 마시고 그 시간 기다리셨다가 일정 만들어 놓으셨다가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다 인사말씀을 주셨어요. 정을호 위원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조금 늦었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을호 위원입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문정복 간사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닙니다.

○**정을호 위원** 하실 말씀 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도 지금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의 지나친 입시 경쟁과 과도한 교육비 부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OECD 최하위라는 아이들의 행복도까지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 또한 꼼꼼하게 챙겨서 이번 교육위에서 활동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학교에 다니며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우리 강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강경숙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문 간사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그게 장윤금 총장하고 문시연 후보가 1, 2등을 했는데 그 표차가 어느 정도냐면요 1등을 한 문시연 교수가 56.29%고요 2등을 한 장윤금 혼 총장이 43.71%라서 12.58%의 비교적 큰 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3, 14일 날에 그런 투표를 했고 이제 오는 20일 날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사회가.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거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내일 숙대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인 분명한 이슈를 만들어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의가 25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25일 2시에 상임위를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동 시간대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 시간도 조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개회를 예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에 따라서 시간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전문위원 정순임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국민의힘	2024. 6. 10.
강경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안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5. 30.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8)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5.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0051)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4.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 6. 5.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7.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이상 6건 6월 11일 회부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6)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1.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9)

이상 4건 6월 12일 회부됨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3.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2024. 6. 1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4)

이상 2건 6월 14일 회부됨